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6호 【루계 제25199호】 주체105(2016)년 2월 25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우리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선군승리의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져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온 세계를 진감시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4돐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뜻깊게 경축하고 어머니조국을 떠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이역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한없이 그리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려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보살펴주시며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을 다시금 체험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으신 뜻과 은정에 감사한 마음 푸근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력사에 찬연히 빛나는 2월 16일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수령복, 장군복의 대행운을 대를 이어 안겨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며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온 겨레, 온 세계가 함께 경축하고 대대손손 빛내여가야 할 인류공통의 혁명적명절입니다.

민족의 넋과 선군혁명의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성스러운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수십성상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역땅에 살고있는 우리 재중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조국과 운명도 숨결도 같이하는 해외동포조직으로 꾸려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엄백번 변한다 해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광명성절경축행사들에 참가하여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받드시여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운을 무변광대한 우주에 펼치시여 광명성절을 더욱 뜻깊은 혁명적경사로 경축하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과 도덕의리의 숭고한 세계는 우리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과 광명성절경축공연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의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원수님 명도만 받들려는 불변의 혁명신념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가 하는것을 뼈속깊이 새긴 저희들입니다.

천지개벽된 평양의 모습을 경탄속에 바라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창조물들을 감동속에 돌아보며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드신 병진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야말로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승리의 기치이고 민족운명의 위대한 보검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명절날에도 과학기술전당으로 그칠새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학습열기를 보며 그리고 무균화, 무진화, 무인화된 공장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생산된 《금컵》상표를 단 세계최고의 식료품들을 맛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상의 정당성과 위력앞에 한목됐고 인민사랑의 따뜻한 세계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의 힘, 때를 지은 렬강들의 압력과 《제재》를 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무섭게, 보란듯이 솟구치며 비약하는 조국의 강대한 힘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조국방문에서 받아안은 충격, 가슴 뭉클 젖는 행복과 긍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처럼 위대하고 강대한 조국이라는 신념의 기둥을 억년만년처럼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의 큰절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장군님을 따르던 그 마음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라 총성과 애국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갈것이며 피끓는 심장을 원수님 계시는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겠습니다.

조국의 사랑, 원수님의 은정만 받는 해외동포조직으로 될것이 아니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로심초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고 조국의 강성과 문명, 부흥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동포들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애국동포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선을 이끄시는 힘이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어버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긍지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심은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동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위하여,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내 조국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대업의 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105(2016)년 2월 20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일동

백두령장들의 손길아래 백승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칭송하였다.

로씨야신문 《에베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포악한 미제와 15개 추종국가들로 이루어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3년간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위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투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비범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군사학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능통하신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김정일각하의 손길아래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최정예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강적파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였다.

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에 매달렸던 미국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였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는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은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자위적국방력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군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여 군인들을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수호할 의지에 충만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훈련도 자주 보아주시고 새로운 전술과 전법도 가르쳐주시며 그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싸움준비를 완성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인민군대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으로 무장하며 믿음직한 전쟁억제력까지 갖추도록 하시였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인민군의 위력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비범한 령장을 높이 모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신 전설적령장이시다.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령도자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파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승리만을 떨치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오늘 조선인민군의 전투에는 김일성주석, 김정일령도자와 꼭같으신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계신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천출명장으로서의 빛나는 군사적예지로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령도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전승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시였다.

또한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령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고계신다.

콩고신문 《라 쎄멘 아프리캔》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련전련승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위력한 군대로 더욱 튼튼히 자라났으며 그 위력은 최고의 높이에 올라섰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선군령장들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만고대죄는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를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태양민족의 존엄을 걸고 무자비한 징벌을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리경일은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시기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극악한 적대행위에 분격을 금치 못하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련합기업소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역적패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존엄높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이 있다면 하늘끝에 올라가고 땅속을 뒤져서라도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선군조선의 철석의 의지이며 본때이다.

원쑤들은 적대행위의 소굴, 본거지인 청와대와 미국본토를 불바다, 재더미로 만들겠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결단이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때늦게야 알게 될것이다.

우리는 70일전투의 거세찬 불길로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의 극악한 도발책동을 짓뭉개버리고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옹위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참모장 김명룡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최후발악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뜨렸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감히 버젓지같은 박근혜역적패당이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겠다고 미쳐날뛰고있다니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이제 더는 역적패당과 말할 필요가 없다.

원쑤격멸의 증오와 복수심으로 만장약된 백두산용대의 맛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보여줄 때는 왔다.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망동, 우리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려고 한 악행이 얼마나 참혹하고 엄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가를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 천겹만겹의 성벽을 쌓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그 무슨 특수전단이요, 특공련대요 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것들을 모조리 족탕쳐버리는 심정으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선군청년전위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겠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원동철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극악무도한 《참수작전》과 《제제봉쇄》책동에 치가 떨려 견딜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참는데도 분수가 있다. 도가 넘어 이제는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날뛰고있다니 추호도 용서할수 없다. 미친개의 소굴인 청와대며 반동통치기관들, 대양건너 미국땅덩어리를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대역죄, 우리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려고 한 악행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것인가를 후회할 놈도 없게 백두산용대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기를 두고 쌓인 한을 풀기 위한 성전에서 우리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옥탄용사가 되겠다. 기적창조의 불길, 원쑤격멸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함으로써 7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겠다.

우리 운명, 우리 삶의 터전을 목숨바쳐 지키리

동림군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안병옥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없애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어제날병사의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내 나이 지금 80이 훨씬 지났다. 어깨에 총을 메고 조국보위의 길에 나섰던 단발머리 그 시절부터 수십년세월이 지났지만 언제 한번 가슴속에서 복수의 서리발총창을 내려본적 없다.

이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 때가 온것 같다.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고 빛내여주는 아름다운 이 땅, 우리의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기 위해 나도 전화의 군복을 떨쳐입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서겠다. 원쑤들과의 최후결전에서 의용군녀병사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신천박물관 관장 박염숙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우리 삶의 영원한 터전인 공화국이자 곧 우리 원수님의 품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언제나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주는 어버이품을 생각하고 그 품을 그리며 낮에도 밤에도 일손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이다.

마음의 기둥, 삶의 태양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억척의 의지이고 신념일진대 어찌 그것을 허물어버리려고 달려드는 원쑤의 무리를 우리가 가만둘수 있겠는가.

원쑤들의 온갖 압박과 제재앞에서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사상, 삶의 전부인 우리의 제도를 버리고 굴복할 우리가 아니기에 최후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뼈에 새긴 우리의 배짱으로 미국본토를 포함한 승냥이소굴들을 이 세상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겠다.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련못대대 운전사 김영숙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용용한 기상과 장엄한 전진앞에 당황망조한 비겁쟁이들이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정을 터놓았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하지만 령도자와 인민이 한식솔이 되여 서로 위하고 아껴주며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훌륭한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그 품에서 나도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공훈운전사로 자라났다. 그런데 이런 고마운 품을 원쑤들이 감히 넘보며 《참수작전》이요, 《제제봉쇄》요 하고 떠들어대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가소로운 망동이 어디에 있겠는가.

원쑤들은 똑똑히 명심하라. 그가 누구든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바로 우리 천만군민이라는것을.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기사장 정희린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우리의 가슴은 지금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부글부글 끓여 날뛰였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앞에서 원쑤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똑똑히 새겼다.

우리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일군들은 대를 이어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관리국아래 모든 공장의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계급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다른 한손에는 창조의 마치를 높이 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겠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 제7차대회까지 모든 공장들에서 상반년계획을 완수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평양시대권도선수단 선수 리충일은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대역죄, 우리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려고 한 악행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쑤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 천겹만겹의 성벽을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 그 어데에도 없으며 침략의 무리들이 무분별한 책동을 계속 일삼는다면 불피고 무자비한 불벼락세례를 면치 못할것이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원쑤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의 숨결은 우리 선수들의 심장속에서도 애국의 피가 더욱 끓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국제경기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원쑤격멸의 그 기상으로 백두의 혼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매일 혼련과 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육체기술적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경기마다에서 당이 밝혀준 우리 식의 전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강철같은 육체적능력을 갖추며 환상한 투지와 인내력 등을 키우는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겠다.

하여 앞으로 있게 될 국제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봉우리에로 줄달음치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뜰없이 떨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본사기자

대고조의 불길로 침략의 아성을 불사르겠다

건설건재공업성 부국장 장룡팔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의 구절구절마다에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최후결판을 내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맥박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식의 타격전이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길 때는 왔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는 말이 있다. 미제가 우리와 한사코 대결할 앙심을 품고있는 이상 천추만대의 원한을 가슴후련히 풀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로 여기고 원쑤들에게 준엄한 멸적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이어 다지고다져온 우리 식의 타격전으로, 상상할수 없는 보복전으로 만가지 악의 소굴이 우리의 신성한 행성에 다시는 그 싹조차 보이지 않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벽을 이룬 결사관철의 기수가 되여 온갖 악을 빚어내는 미제를 비롯한 호전광들의 아성을 대고조의 불길로 가차없이 짓뭉개버리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만드시 이룩할것이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혜숙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에서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제제봉쇄》를 실현해보려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는것을 너무도 모르고 헤덤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다. 놈들과 총결산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우리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최고수뇌부를 건드려보려는 미제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무분별하게 날뛰는 역적패당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씨뿌리기준비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목표는 높지만 신심이 넘친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으로 적의 아성을 불살라버리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박태선영웅소대 소대장 우승환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천인공노할 악행에 이가 갈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모두의 생명인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단매에 족탕쳐버리고싶다. 휘황한 미래에로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다 못해 이제는 감히 우리의 운명이고 태양인 최고수뇌부를 겨냥하여 미쳐날뛰고있으니 이런 놈들을 어찌 이 땅, 이 하늘아래 살려둘수 있단 말인가.

두번다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개꿈을 꿀수도 없게 그 무슨 《참수작전》과 《제제봉쇄》실현에 미쳐날뛴 마지막 한놈까지 다 찾아내여 씨도 없이 소탕해버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의 눈부신 태양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생명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미쳐날뛸수록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목숨으로 옹위할것이며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단매에 짓뭉개버리는 심정으로 광물증산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려갈것이다.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 로농적위군 대원들 본사기자 촬영

정 론

70일전투의 승리자가 되자

천만이 또다시 일시에 일떠섰다.

70일전투!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최후의 총공격전, 결사전은 이렇게 개시되였다.

70일은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순간과도 같다. 그러나 달려야 할 격전의 진군로를 내다보는 천만의 심장에 그것은 산악처럼 거창하게 안겨온다.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또다시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기적과 비약의 70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승리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성대하게 열릴 우리 당 제7차대회에 삼가 드릴 충정과 의리의 꽃바구니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원으로 만발할 이 땅의 70일이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아래 자라난 천만아들딸들이 생을 주고 존엄을 주고 인생의 영광을 안겨준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고마운 자기의 어머니를 어떻게 온넋으로 사랑하고 받드는가를 온 세상에 보란듯이 과시할 충정과 의리의 70일, 기적과 비약의 70일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분화구를 뒤친 화산의 용암도 이보다 뜨겁고 격렬하지는 못할것이다.

전투로 밤이 새고 새날이 밝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부터 우리 원수님의 축하전문에 화답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강원땅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는 거대한 기적과 앙양의 불도가니이다.

격랑을 일으키며 노도치는 대하의 흐름도 이보다 기세차지는 못할것이다.

결사관철을 맹세하는 당원들의 열띤 목소리가 엄숙히 울린다. 100%는 성차지 않아 200%, 300%의 목표를 내걸고 창조의 한밤을 지새우는 량심과 의리의 인간들의 혁명열, 투쟁열로 이 땅은 밤이 와도 밤을 모르는 땅이 되였다.

달리는 위훈의 주로는 다르고 안아올리는 창조의 열매도 같지 않다. 그러나 저기에 고동치는 숨결은 하나이다.

70일전투의 승리자가 되자!

이것이 강산을 진감하는 숨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만의 심장에 하나로 깃들어 이 땅을 끓게 하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철의 의지이고 열망이다.

전투에는 목표가 있고 기어이 안아와야 할 승리의 표대가 있다.

천만이 참전자가 되고 온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가 포성없는 격전장이 된 오늘의 70일전투는 과연 무엇을 위한것이며 그 위대한 승리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당중앙결사옹위의 불길, 이것이 우리의 70일의 불덩이같은 넋이다.

대고조의 승리로 당중앙을 옹위하고 당 제7차대회를 결사보위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의 70일전투 참전자들의 심장에 고패치는 결사의 의지이다.

돌이켜보면 대고조의 승리로 당중앙을 옹위하고 생산적앙양의 불길로 당대회들을 빛내인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고 전통이다.

지금도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벌리였던 100일전투의 나날을 잊을수 없다.

《100일전투파제를 25일동안에!》, 《소대가 중대의 몫을!》, 《하루파제를 매일 2배로!》… 기적과 위훈으로 날이 밝고 저물던 그 나날의 기록들은 새길수록 벅차다.

공업생산은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142% 장성, 전국적으로 100일전투파제를 9월 30일에 수행!

100일전투가 점령한 이 놀라운 수자와 경이적인 목표들은 당중앙결사옹위, 당대회결사보위의 신념으로 맥동치 천만의 심장의 열도였고 충정의 높이였다.

혁명의 대는 바뀌우고 일터의 세대는 달라졌다. 그러나 우리의 명줄이고 생명인 당중앙결사옹위의 바통은 오늘도 억세게 이어지고 있다.

당이여, 어머니이시여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불붙는 석탄이 되여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고 그대의 온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한줌 거름이 되여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라는 심장의 고백이 오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천만의 심장에 피방울마냥 높뛴다.

당 제7차대회, 조국을 받들어 기적의 나라로 빛내여주고 인민을 이끌어 영웅인민으로 키워준 우리 당의 력사와 불멸의 업적이 다시금 천만의 가슴에 후덥게 어려오는 력사의 분수령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인민을 이끌며 광활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전도양양한 우리 당의 힘과 위용이 천하를 진감하고 천만의 심장을 이름 못할 긍지로 부풀게 하는 반만년민족사의 대경사 우리 당 제7차대회이다.

발사대처럼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받들어올릴 결정적인 도약대를 마련하는 보람찬 전투이다.

오늘 원쑤들의 발악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압박과 제재에 중독된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민족반역자, 특등매국노인 남조선괴뢰패당까지 야합하여 동족대결의 핵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새해벽두부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의 불구름이 일고 최후의 승리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원쑤들의 발악은 사상 최대의 폭과 규모에서 감행되고있다.

우리는 기적과 앙양의 70일의 승리로 악착한 원쑤들의 머리우에 복수의 불벼락을 퍼부을것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주체의 핵강국, 위성강국인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번쩍 받들어올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도약대를 마련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상승주로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준엄한 날에 혁명이 더 힘차게 전진하였다는것이다. 원쑤들이 발악할수록 혁명은 더 세찬 폭풍기상을 안았다.

내외의 원쑤들의 준동을 천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단호히 쳐갈긴 1956년 12월 천리마대고조의 발단이 그러하였고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1960년대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을 받들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조국의 힘을 천백배로 키워온 로정이 또한 그러하였다.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천만이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더욱 굳게 뭉쳐 선군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고난의 행군의 승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있다.

원쑤들의 발악은 극도에 달하여도 우리의 전진은 순간도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는 70일전투의 승리로 만리마를 타고 더 거세차게 나래쳐오를것이며 원쑤들의 간악한 제재와 봉쇄의 포위망에 결정적파렬구를 내고 최후승리를 위한 기적과 비약의 도약대를 자랑스럽게 마련할것이다.

우리 당은 안온한 온실이 아니라 혁명의 불비속에서 천만아들딸들을 강철의 투사, 창조의 능수, 기적의 영웅들로 키워왔다. 70일전투로 비약할 조국의 위용도 눈부시다. 그러나 들끓는 시대의 숨결속에서 더욱 미덥게 성장할 천만대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70일이 가져다줄 또 하나의 긍지높은 승리가 아니겠는가.

강철은 불속에서 단련되듯이 인민은 혁명투쟁의 격전속에서 성장한다.

추억도 새롭다. 어느덧 40여년이 흘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던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70일전투, 얼마나 미더운 대오의 탄생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1970년대, 속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여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 마련되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제시되여 항일의 넋을 지닌 인민이 더욱 미덥게 성장하였으며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심장에 불을 다는 사상전의 능수들로 자랐다. 우리 예술인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혁명적예술인들로 억세게 성장하였고 당보에 사설 혁명의 포성이 울려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70일전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창조의 거장이신 우리 원수님의 슬하에서 조국과 인민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할것인가.

우리 일군들이 떨사복무의 선구자들로 준비될것이다. 곳곳에서 창조되는 영웅청년신화와 더불어 이 땅의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튼튼히 자라날것이며 드높은 생산적앙양의 불길속에 우리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체질화한 창조의 거인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할것이다. 70일전투의 장쾌한 승리와 더불어 이 땅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사수전의 선봉투사,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솟을 이룰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아니겠는가.

심장은 환희로 격랑치고 용맹은 온몸에 뻗친다.

점령해야 할 목표는 높고 아름차지만 천만의 가슴은 승리의 신심으로 고동친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리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전의 명령을 받아안고 용기백배 나아가던 항일의 투사들처럼 천만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다.

무엇으로 하여 승리를 락관하는 우리의 심장은 이렇듯 뜨겁고 환희로운가.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여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 조선의것이다!

이것이 천만의 심장에 끓어솟는 필승의 신심이다.

우리 원수님을 전두에 높이 모시고 투쟁해온 지난 4년간의 체험은 진정 얼마나 뜨겁고 소중한가. 우리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열, 매혹열로 강산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그 세월이 인민의 신념을 떠받쳐주는 날과 달들로 이 땅우에 계속 흐르고있다.

불과 두달이였다. 그러나 2016년의 첫 두달에 우리는 반만년민족사의 꿈과 숙원을 이루며 참으로 눈부시게 전진했다.

우리 지하전동차의 첫 운행, 미래에로 가는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이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우리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그것은 자연의 절기에는 사계절이 있어도 혁명에는 사계절이 없다는 의지로 당창건 70돐의 경축광장을 지나 또다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랑찬 승리의 열매들을 이 땅에 계속 호함지게 주렁지워주시려 우리 원수님 바쳐오신 로고와 헌신의 결정체들이다.

한해가 다 가는 지난해의 마지막 나날까지 황금해력사창조자들속에 계신 우리 원수님,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하시며 신년사를 마치신 그길로 끝없이 이어가신 로고와 헌신의 길은 또 얼마이던가.

인민이 다 보르는 길이였다. 인민에게는 그 고생길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려 깊은 밤, 이른새벽 내리는 찬눈비 다 맞으시며 우리 원수님 헤쳐가신 길이였지만 오늘은 그 길을 세계가 다 보았고 인민이 또 보았다.

맑고 푸른 2월의 봄하늘가에 솟구쳐오른 우리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운, 그것은 정녕 우리 원수님 걸으신 애국헌신의 천만리가 저 하늘가에 새겨진것 아니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며 그이께서 걸으신 불타는 로고와 헌신의 길들이 이 땅우에 차고넘쳐 저 만리대공에로 이어진것 아니던가.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그 불타는 숙원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이어오신 날과 달들은 그대로 어떻게 조국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온넋을 바쳐 혁명을 떠밀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으로 우리의 심장을 팡팡 울린다.

그러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전사들에게 안겨주시며 하루빨리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시려고 오늘도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계시는 우리 원수님,

우리 원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우리 원수님처럼 혁명에 충실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앞에 철저하며 혁명열, 투쟁열로 온넋을 불태우는 참된 조선로동당원이 되고 견결한 혁명가가 되자.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70일전투의 목표들을 한목숨 바쳐서라도 결사관철하자!

천만의 심장은 지금 이 의지로 고동친다.

오늘의 70일전투의 승리의 담보는 무엇인가.

자강력제일주의! 이것이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은 지금 극도에 달하고있다. 오늘과 같은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당이 믿는것은 오직 위대한 우리 인민뿐이며 무궁무진한 우리의 자강력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터득하고 백사만능의 무기로 틀어쥔 자력자강의 정신력, 70여년동안 다지고다져온 조선의 자강력이 오늘의 70일전투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70일전투의 승리자는 다름아닌 자강력제일주의자이다. 우리 당의 자력자강의 사상과 신념을 뼈와 살로 삼고 삶과 투쟁의 무기로 틀어쥔 사람만이 만리마를 탈수 있으며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다.

자기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 자기 힘을 굳게 믿으라! 이것은 결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의 글줄이나 전후 천리마기수들의 체험담만이 아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시대 창조와 위훈의 억센 밑뿌리이며 시대의 앞장에서 기세차게 나아가는 만리마기수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당에서 바라는 우리 식 생산공정이 일떠섰다고 그처럼 기뻐하신 김정숙청양방직공장에는 무심히 들을수 없는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공장에는 매일같이 펼쳐지는 두 광경이 있었다. 하나는 수입직기의 수입이냐 아니면 우리가 만든 유연창대직기의 개조이냐 하는 갑론을박이였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매일과 같이 진행한 우리 설비에 의한 가방용천생산시험이였다.

《원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유연창대직기에 의한 가방용천생산이 불가능하다는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였습니다. 말하자면 가방용천생산설비의 국산화만은 어렵다는것이였지요. 그때 우리 일군들에게 큰 힘을 준것은 현장로동자들의 놀라운 모습이였습니다. 매일같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기어이 우리 설비에 의한 가방용천생산을 완성하려고 완강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없이는 볼수 없었습니다.》

공장당일군의 이야기였다.

실패를 몇번이나 하였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매일 실패하였다고 대답한다. 생각해보시라. 매일같이 거듭되는 실패를 한두달도 아니고 무려 어러말동안이나 거듭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수입설비가 아닌 우리 유연창대직기에 의한 가방용천생산에서 성공한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새길수록 후덥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이처럼 놀랍고 위력하다. 그 정신이 고동치는 곳에 불가능이란 없고 뚫지 못할 고난이란 없으며 이루지 못할 기적이란 없다.

우리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에서, 70일전투의 격전장들마다에서 이런 자력자강의 정신이 불길처럼 타오를 때 원쑤들의 압박과 제재의 포위망은 산산이 부서질것이며 우리 혁명은 무한한 힘과 용맹에 넘쳐 기세차게 전진할것이다.

자기의것이 제일이며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만능의 열쇠로 틀어쥐고 70일전투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 자력자강의 보검으로 70일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자.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워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누구나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첫문을 어찌하여 과학으로 여시였는가를.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원쑤들의 책동을 짓뭉개는 통쾌한 명중탄이며 오늘의 70일전투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보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우리 위성을 0.001mm의 편차도 없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조국의 승리와 번영을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으로 담보하라.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으로 70일전투의 승리를 담보하는 과학자영웅, 애국과학자가 되라.

일군들은 오늘의 대고조전군의 선구자이며 만리마의 고삐를 틀어잡은 기마수이다. 일군들은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사상의 위력으로 돌파구를 열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기적을 창조하는 사상전의 능수가 되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신념으로 새기고 백사만사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체질화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한명의 인재를 키워 열, 백을 풀어나가는 실력가형의 일군, 실천가형의 일군이 되라.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나라가 동시에 일제히 들고일어날 때 혁명의 고조와 앙양이 일어난다.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어디서나, 누구나 최고의 목표를 안고 최대의 속도로 내달리며 전인민적총동원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나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조국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기 단위에 제시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모든 초소와 일터를 70일전투의 승리의 고지로 되게 하라.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동무는 오늘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누구나 이 물음앞에 매일, 매 시각 자신을 세워보며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이라.

불같은 시간이 흐른다.

조국에도 인생에도 더없이 귀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의리의 자욱으로 수놓으라. 값높은 생의 흔적을 걸음마다 새기라.

당과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 오늘의 승리를 위해 피와 땀 다 바친 혁명선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필승의 신심과 용맹을 안고 모두다 70일전투의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70일전투의 자랑찬 보고를 안고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

방 성 화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금 찍음

우리 혁명사에 새겨진 첫 70일전투의 나날에

력사적인 70일전투에 일제히 진입한 천만군민은 우리 혁명사에 자랑스러운 년대기를 펼치여온 당의 혁명적령도예술에 대하여서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다른 고리들을 옳게 결합시켜 해결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전략전술적원칙입니다.》

주체63(1974)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이제 멀리게 될 70일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을 토론하시였다.

일군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으시였다.

사실 70일전투의 목표를 수행한다는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짧은 기간에 자기 궤도에 올려세울수 있는 고리를 몇개의 기간공업부문으로 본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전투의 과녁을 바로 정하지 못했다고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물론 그런 기간공업부문이 중요한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그 부문이 파녁으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번 70일전투에서 과녁을 바로 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이 중심과녁의 하나로 정한 강선제강소(당시)의 실례를 드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제강소에서 철강재가 팡팡 나오지 못하는것은 생산능력이 딸리거나 로동자들의 생산열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원료가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깨우쳐주시였다.

사정은 경공업부문이나 지방공업부문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이 부문의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이 석탄이 부족하여 마력을 다 내지 못하고있는데 발전소나 제강소, 기계공장들에 아무리 힘을 넣은들 무슨 보족한 수가 있는가고 교시하시였다.

지금 전반적인 공업부문이 안고있는 주되는 난관은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여 생기는 난관이라고, 그러므로 이 고리를 푸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송과 수출부문의 실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서 몸에 혈액순환이 잘되어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나라의 동맥인 수송이 왕성해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끓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채취공업과 수송, 수출, 이것이 인민경제의 련쇄된 무수한 고리들을 풀고 70일전투의 아름찬 과제를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요긴한 세 고리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복잡하게 엉켜져있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련쇄된 고리들을 예리한 과학적통찰력으로 일목료연하게 밝혀주시고 70일전투의 중심과녁을 가장 명확히 정해주시는 명철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비범성에 일군들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고 70일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도약대를 마련한 70일전투의 위대한 승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가 안아온 기적이였다.

이때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들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모든 문제해결에서 과녁을 바로 정한 다음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그와 련쇄된 모든 전선들에 공격전을 들이대는것, 참으로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였다.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협하고 숨죽은 공장들과 불꺼진 거리들을 두고 누구나 경제문제만을 우려하던 지난 고난의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원칙을 승리의 열쇠로 억세게 틀어잡으시였다.

흥대로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선군의 길에 주저없이 나서시던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철석의 신념은 바로 이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열어놓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이 나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은 하늘에 닿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력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과 일대 비약의 분수령으로 자랑스럽게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캄빨라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각하

나는 당신이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우간다대통령으로 재선된것은 당신에 대한 귀국인민의 높은 신임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우간다인민이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2월 23일 평 양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넘쳐나는 뜻깊은 2월에도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짜고들어 심도있게 진행함으로써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위대성도서들에 대한 독보 및 연구발표모임을 당세포, 근로단체조직별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탄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도록을 학습한데 기초하여 학습토론회를 가지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이어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선군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우리 운명의 태양을 결사옹위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

력사의 의지—악의 소굴을 재가루로

노기서린 발사대와 포신들에서 방수포가 내리워졌다!

무시무시한 불벼락, 불소나기를 뿌어낼 정의의 최첨단공격수단들이 격동상태에 있다.

엊그제 70일전투에 진입한 우리 조국이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릴 큼직큼직한 창조물들을 마련하려고 생산과 건설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리기 시작한 우리 천만군민이다.

그토록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그토록 창조하기 즐겨하고 희상의 문명에로 치솟는 약진의 기상에 넘친 인민이 왜 이 길을 선택해야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길이 력사의 의지를 따르는 길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입니다.》

력사의 의지, 그것은 민심이고 천심이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이 그처럼 적노하였는가.

하늘에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 일을 두고 푸른 하늘에서마저 번개와 우뢰를 내리지 않으랴.

악귀들의 무리는 하늘에서 태양을 끌어내리겠다고 하고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란 그 말은 옮기기조차 무엄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때때한 청와대의 안방에서, 대양건너 저 멀리 천만가지 악이 엉키어 구린내를 쏟아내는 소굴에서 만인이 공노할 흉계가 꾸며지고 지난 시기 해외침략마당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의 모든 특수작전무력들과 호전적인 무력이 육안으로도 보일 거리에 다가들었다. 그야말로 미친자들의 히스테리이고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문건대 우리 민족이 대양건너 미국땅에 돌팔매 한번 한적이 있었던가. 박근혜역적패당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우리 민족의 공동재보이고 민족의 존엄을 떨친 우리의 핵억제력과 우주개발성과물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야 할 처지이다.

그런데도 악귀들의 무리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이 그렇게도 배아프고 뱃이 꼬여 무모한 광증을 부리다 못해 무엄한 도박에 나선것이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데서와 평화로운 우주개발에서 우리가 이룩한 력사적장거들을 반대할 그 어떤 론리적타당성과 명분을 얻지 못한 적들이 생억지를 부리면서 미친개처럼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만가지 악의 소굴을 재가루로 만들라는것이 오늘날 더더욱 성숙된 력사의 의지이다.

어머니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의 경제건설전투에는 70일이 필요하지만 력사적의지를 실현하는데는 70일은커녕 7일도 걸리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천벌을 받아 재가루가 되기 전에 악귀들은 저들이 무엇때문에 죽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50년전 침략선 《셔먼》호로부터 시작된 숙적인 미제의 침략력사를 날날이 기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해방의 열과에 설레이던 삼천리강토를 돌로 갈라놓고 70년이상이나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미제의 력사적죄행에 대해서도 말끔히 결산할것이다. 창조와 건설의 마치를 서슴없이 총검으로 바꾸어들고 정의의 성전에 떨쳐나설 열의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은 지금 분노의 땅, 복수의 땅 신천의 피의 절규도 듣고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살인귀 미제의 총칼아래 쓰러지면서 무자비한 복수를 부락하였던가.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오늘도 미제의 살인귀적만행으로 흘리는 우리 민족의 피가 멈추어지지 않고있다.

하지만 우리 천만군민이 원쑤격멸의 서리발치는 총검을 더더욱 억세게 틀어잡는것은 오늘날 적들이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 하는 바로 그것때문이다.

우리의 1차타격대상인 박근혜역적패당의 죄행은 대역죄로서 삼천리강토에 대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 죄가 얼마나 큰것인지 다 알겠기에 더 말하지 않는다.

철천지원쑤 미제는 국악무도한 《참수작전》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의 극치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그 죄악에 대하여 가차없이 징벌해버리려고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에 대하여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으며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고 움직하여도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즉시 미국땅에 가차없는 징벌을 내릴것이다.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 행복한 오늘과 오늘, 희망에 넘친 래일에 이르는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강도중에서도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불의에 머리를 숙일줄 모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날강도들의 행위에 어찌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지 않을수 있으랴.

지난날 망국노의 멍에를 쓰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저 잃었던 암흑의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과 인민이 자주권을 되찾고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은것도 그리고 행복넘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올수 있은것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때문이다.

진정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의 수뇌부는 민족의 영원한 하늘이시고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창조의 억센 기상이 나래치는 장대한 공장도, 오곡백과 무르익는 전야와 과원들도 그리고 행복의 보금자리 살림집으로부터 시작하여 귀여운 자식들의 고운 꿈으로 부풀어오른 책가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긍지로운 모든것은 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련결되여있지 않는가.

오만무례한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불라도 너무도 근본적인것마저 모르고 날뛰고있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천만개의 방탄벽이 되였고 천점만점의 성새를 쌓았다.

오늘의 백두산대국은 지난날 원쑤의 원자탄에 보총으로 맞서야 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조선이 아니고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악마의 제국,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과 떨쳐의 의지를 가지고있는것이 수뇌부결사옹위전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군민이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에 역행하여 천만가지 악을 검은구름처럼 내뿜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악귀들의 소굴이 이 행성에 존재하지 않게 송두리채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다.

이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결사의 각오이며 력사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박 일 민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자

하늘엔 태양이 눈부시고 땅우엔 창조의 숨결이 높뛰는 이 나라가 무섭게 진동하고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우리의 운명, 인류의 운명인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원쑤들이 또다시 싸부랑대고있다니 이 얼마나 무엄하고 가소로운 망동의 극치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은 70일전투의 전례없는 창조의 불길에 전례없는 복수의 불길을 더해주며 이 땅을 뭄서리치는 불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력사는 재판판이라 했다.

남의 나라에 돌 한번 던진적 없고 오직 자기 땅에서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며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가는 이런 자주적인 나라가 과연 적이 될수 있는가.

세계를 핵몽둥이로 갈가리 찢으며 자기의 리속만 채우는 정의의 도전자, 인류의 파괴자가 지구우에 존재하고있다는 그자체가 오히려 력사의 비극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민은 그 대답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는 력사의 체험속에서 벌써 뼈에 새긴 인민이다. 식민지민족의 울분을 터치며, 나라를 찾고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피와 땀을 뿌리며 우리 인민은 승리의 진리를 알았고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행복도 미래도 오직 위대한 태양을 결사옹위하는데 있다!

천만이 미싸일이 되여 만가지 악의 소굴인 청와대와 미국을 재가루로 만들어버리자!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이런 군대와 인민을 미국과 괴뢰패당은 또다시 잘못 건드렸다.

이제는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성공과 더불어 최상의 국력을 과시하며 인류가 알지 못하는 최강국의 세계, 최고리상의 세계로 질풍노도처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지위는 하늘에 닿았고 그 위력은 지구를 흔들고있다.

이 땅에서 분출하는 남녀로소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감히 우리 삶의 전부인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다.

이것은 분명 선전포고이다. 서울과 워싱톤을 불바다로 만들자.》

《악의 총본산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한몸이 미싸일이 되여 워싱톤을 하늘로 날려보내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우리 수백만 청소년들은 육탄이 되여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어놓겠다.》

《미국과 역적패당을 처갈기는 본때로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겠다.》

이것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산악같이 떨쳐나 70일전투에 진입한 천만의 한결같은 심장의 분출이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민심이다.

민심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며 그것을 이기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창조의 첫걸음이 복수의 첫걸음과 합쳐져 더 큰 보폭이 된 우리 인민의 70일전투는 참으로 비상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당조직들은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70일전투의 승리가 반미대결전의 통쾌한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천만이 조준경이 되여 지구를 굽어보고 방아쇠가 되여 목표를 놓치지 않고있는 선군조선의 격양된 현실은 최후승리의 날이 눈앞에 왔다는 신심을 때배해주고있다.

그렇다. 분노한 조선의 민심은 웨친다.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자.

본사기자 김 영 철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해갈 신념과 의지 하늘땅에 차넘친다.

증산의 불길을 멸적의 불길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증산의 불길이 멸적의 불길로 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결의에 넘쳐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상원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서 증오의 용암이 끓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제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망동에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무쇠주먹이 무섭게 떨리고있다.

거센 열기를 내뿜는 소성로앞에서, 발파소리 드높은 광산과 탄광의 막장마다에서 증오에 찬 쇠침들이 계속 울려나온다.

쉬새끼무리들이 감히 어디에다 대고,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버러지같은 놈들을 당장 소성로의 불길로 태워버리자!

당 제7차대회장에로 향한 조선로동계급의 발걸음을 멈춰세우려고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대고조의 불길로 징벌하는데서 우리 상원로동계급이 앞장에 서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후 상원로동계급은 더욱 파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달에도 높이 내세운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손에 홍을 들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내달리는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모든 일군들이 만질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뛰고있다. 특히 7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순간순간인 동시에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들과의 전쟁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고있다. 조합원료직장,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이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지금 이들은 원쑤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우는 무기를 다루는 심정으로 설비들을 관리하면서 세멘트생산의 동음을 밤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 화천탄광, 삼청광산의 로동계급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라는 물음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증산의 불길로 원쑤들을 징벌할 기세에 넘쳐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나가고있다.

《하늘에서 태양을 끌어내리겠다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것은 없습니다. 우리 상원로동계급은 우리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을 소성로의 불길로 태워버리는 심정으로 세멘트생산을 더욱 다그쳐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련합기업소책임일군의 심정만이 아니다. 상원로동계급모두의 일념이고 파감한 실천이다.

상원로동계급은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내달려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결의에 넘쳐, 당 제7차대회장에 만리마의 기수가 되여 펏펏이 들어설 명세드높이 파감한 진군길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병진로선관철의 기수들을 더 많이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평양기계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폭풍쳐달릴 크나큰 포부와 리상이 차넘치던 교정이였다.

뜻깊은 올해에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실현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학과목들의 내용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230건의 소론문완성, 수백개 학과목의 6 800여건의 전자화된 교수안작성 등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가려는 이 대학 교육자들의 무한한 열정의 분출이였다.

원격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홈페지에서 실시간문답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고 기계전자공학, 금속재료, 물리, 화학 등 여러 실험실들을 본보기로,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꾸리기 위한 된바람도 일으켜나갔다.

세포지구 축산기지 배합사료공장의 기계 및 조종설비설계제작,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포장공정의 묶음포장기설계제작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불같은 열정속에 70일전투의 첫걸음을 더욱 힘있게 내딛고있던 교원, 연구사들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가로막아보려고 원쑤들은 날뛰고있다.

교육은 정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무분별하게도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불아오려는 오늘의 정세가 정화로운 교정에 또다시 새겨주는것은 무엇인가.

총대와 후대교육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이다.

정의의 총대우에 정화가 있고 조국의 안녕과 번영이 있으며 교육의 참된 발전과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이런 진리를 새긴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기에 감히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최후발악을 하는 적들에게 가장 무자비한 보복의 불소나기를 안길 멸적의 의지를 벼리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에는 이 대학에서 자라난 우수한 인재들의 땀과 노력도 깃들어있다. 하기에 교육자들모두가 우리 당의 병진로선관철에서 한몫하는 쟁쟁한 실력가들,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수호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려는 일념에 넘쳐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앞당겨졌고 밤깊도록 교정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있다. 한손에는 홍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펜을 들고 원쑤들을 짓부시는 심정으로 교원들도 학생들도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라는 신념이 온 교정에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우리도 공격출발진지에 서있다

한천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

우리는 중심어장에로의 출항을 앞둔 한천수산사업소 포구에 서있다.

여기서 역적패당의 본거지와 미제침략군이 도사린 곳까지는 지리적으로 멀다.

허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여 극도로 분노한 어로공들의 마음은 공격전의 출발진지에 가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근면하고 용감하며 의리심이 깊고 례절이 바른 인민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일촉즉발의 팽팽한 분위기가 포구에 떠돈다. 번쩍거리는 선체와 추켜든 선수의 보양새가 어뢰정이나 구잠함처럼 안겨온다.

방송으로 벌써 몇번째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울려나온다.

어기저기서 어로공들이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는다.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던 갑판에 폭뢰를 싣고 부산앞바다에 돌입하여 핵동력잠수함을 까부시자!》, 《미제군특수전단 〈씰〉팀 놈팽이들은 그물을 잘 놓는 우리가 한키망에 잡아치우겠다.》, 《이번 기회에 아예 청와대는 물론 미국땅덩어리를 통채로 수장해버리자.》…

모두가 이말을 으득으득 간다.

으스러지게 추켜든 무쇠팔뚝들이 총검마냥 숲을 이루며 창공을 찌른다.

수리정비를 끝낸 고기배의 성능검사가 한창이다. 여러척의 고기배들이 청와대와 미제의 침략기지들을 통채로 짐부른 바다속에 수장할 기상인듯 물갈기를 일으키며 전속으로 포구를 떠난다. 갑판에서는 어로공들이 불타는 증오심이 어린 눈길로 남쪽하늘가를 노려본다.

출항시험에 들어간 고기배들의 앞장에는 새로 건조한 배가 섰다. 앞서거니뒤서거니 예전에 볼수 없었던 항해속도이다. 그 모습은 놈들의 등허리에 멸적의 비수를 박을 용맹한 어뢰정대를 련상케 한다.

정장, 로수, 무전수출신의 제대군인어로공들 모두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고 중심어장에로의 출항준비를 서두르면 근면하고 의리심이 깊은 바다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이하여 복수의 성전을 다짐하고있는것인가.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겠다고 어리석은 군사적망동에 미쳐날뛰는 치바두른 악녀 박근혜역적과 남강도 미제에 대한 분노가 하늘에 닿았기때문이다.

우리와 만난 수산사업소의 일군 주광건동무는 흥분하여 말한다.

《저렇듯 격노한 어로공들의 모습은 처음 봅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남쪽하늘가를 노려보며 일손을 다그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명령만 내리면 용약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겠다는 종업원들이 늘어난다고 덧붙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는 서슬푸른 기상으로 이들은 만단의 출항준비를 갖추었다.

그러한 때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의 노래가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합창으로 번져진다.

절절에 부르는 당의 목소리
우리들의 젊은 피 끓게 하누나
…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의 가슴에 승리자의 긍지가 차넘친다.

선군의 기치아래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가진 군사강국인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이 행성에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다.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70일전투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주체의 사상론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온 나라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전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발표하신 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이 력사적연설은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명시한 전략적대강으로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상리론적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사상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강력한 사상공세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일군들을 견결한 혁명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된 일군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위대한 사상으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뿐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되였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기상이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천만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나갈데 대한 로작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2년간의 전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상의 힘으로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현시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밝히시고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종자로, 핵으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벌려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목표로 규정하시고 그 돌파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뚫기 위한 전당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열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로작에 밝혀진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여있는 대백과전서이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실현의 첫 공정이며 정신력발동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지난 2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차넘치는 속에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존비되게 되였으며 당전성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천만군민이 당증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로 굳게 결속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가장 큰 성과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절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다. 오직 당만 굳게 믿고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나아갈 신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결사의 의지로 가슴끓이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들이 당의 두리에 성벽을 쌓고있기에 백두산대국의 필승의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고귀한 지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물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사상의 로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이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될데 대한 사상, 사상전의 과녁을 바로 정하고 적중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로작에 밝혀진 사상리론들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오늘 조국보위초소와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힘있는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나가는 사상일군들이 앞장에 서있다. 걸보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뜨거운 인정미로 불타는 사상일군들이 있어 당과 대중의 혈연적뉴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성이 힘있게 과시되고있으며 온 나라에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고있다.

특히 황금해의 새 력사와 더불어 동해전역에 펼쳐진 《이채어경》은 공세적인 사상동원전,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나갈데 대한 우리 당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군소리가 없고 직선적이며 내용이 명백하고 호소성이 강한 선전선동,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당의 목소리가 한시도 중단없이 울리게, 대중의 앙양된 혁명열, 투쟁열이 순간도 식지 않게 심장을 끓임없이 달구어주는 드세찬 사상공세, 바로 여기에 인민군대 당정치사업의 근본특징이 있다.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대오의 기수,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 힘차게 벌려나가는 위력한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끝없이 넘쳐나고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을 변모시켜나가는 대비약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였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위력이 높아지는것만큼 우리의 힘찬 진군속도는 빨라지고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될 때 승리의 5월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사상전의 힘찬 포성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게 한 원동력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사상의 대결, 정신력의 대결이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상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바로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로작에는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 자력갱생의 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제국주의의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쓸어버릴데 대한 문제 등 사상공세작전을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지난 2년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 천만군민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당적, 전사회적인 교양사업이 강도높이 벌어졌다. 5대교양이 실속있게 진행되고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은 투쟁의 진군가가 대고조전투장들에서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백절불굴의 신념과 원쑤격멸의 의지가 꽉 차넘치게 되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고 자강력제일주의로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것은 당사상사업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힘있는 증시이다.

최근년간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을 어렵게 만들려는 원쑤들의 제재와 경제봉쇄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더욱 본격화되고있다. 그러나 견결한 혁명사상과 혁명신념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사상의 힘, 군민대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은 어지없이 풍지박산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용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의 그 어떤 대결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오 수 경

반제계급교양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이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도록 하고있다. 계급교양주제의 예술공연과 영화판람,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만행의 체험자, 목격자,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청년들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고있다.

창조의 마치를 들고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남강도 미제가 핵몽둥이를 들고 달려들고있다.

어제 당보 1면에 당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70일전투에서 전위투사가 될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소식과 함께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실린것은 조성된 정세의 심각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세대가 바뀌고 투쟁이 심화될수록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며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온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금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이것이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혁명이 새긴 계급투쟁의 진리이다.

지난해 7월 새로 건설된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계급교양사업을 일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반제계급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 열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우선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의 사상적보루로 거연히 일떠선 신천박물관, 수산리계급교양관에 대한 참관사업을 활발히 조직진행하고있다.

농업성,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당조직들과 평양시당위원회, 황해북도당위원회, 남포시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 참관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계급교양의 거점이고 복수심의 발원점이며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날날이 발가놓는 력사의 교발장인 신천박물관 참관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전당에 계급교양거점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고있다.

두해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천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은 연탄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비상히 각성시켰다.

군당일군들은 군계급교양관을 견결한 반제계급투사들을 키워내는 학교로 훌륭히 꾸릴 결심을 굳고 떨쳐나섰다. 한편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있는 계급교양거점들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사이에 군에 있는 모든 계급교양거점들이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날날이 발가놓는 력사의 교발장으로, 철천지원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복수심이 분출하는 곳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평안남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당조직들도 계급교양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교양거점부터 잘 꾸리는것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여기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계급교양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갈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계급의식은 피로 이어져야 한다.

구성시당위원회 사업은 전쟁로병들을 통한 반제반미계급교양이 얼마나 큰 실효를 나타내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준다.

구성시 남산동에는 전화의 나날 박원진영웅의 최후를 목격한 홍병칠전쟁로병이 살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계급교양관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서 홍병칠전쟁로병과의 상봉모임을 정상적으로 의의있게 조직하도록 하였다.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공장들과 들끓는 로전들에서, 인민군대입대열기가 차넘치는 교정들에서 울려퍼진 전쟁로병의 절절한 호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심장마다에 영웅들의 넋이 세차게 고동치게 하였다.

계급의식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물려받는것도 아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계급투쟁의 대,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이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도록 하고있다. 계급교양주제의 예술공연과 영화판람,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만행의 체험자, 목격자,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청년들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고있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 우리 제도와 사회주의생활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은 오늘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70일전투기간에 전속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멎어있던 공장을 돌리는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특히 반제계급교양의 열도를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높여 그들을 계급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이여,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반제계급교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본사기자 김 승 표

화선선동의 위력 힘있게 과시

신천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사상사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도 자못 중요하다. 신천군안의 선동원들이 지난 60일간의 농사차비전투에서 보여준 사실이 그것을 확증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은 언제나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사상사업의 성과도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선전선동부에서는 선동원들의 년간사업총화모임을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앞당겼다.

선동원들의 지난 한해사업총화를 진지하게 진행한 후 경험토론회를 련이어 진행하였다. 여기서 토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결부하여 호소성이 강한 토론들을 하게 되였으며 참가자들은 스스로가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선동원들을 위한 모임조직에서 군당일군들이 잘한것은 경험토론회뒤끝에 선동기재들의 출동식을 의의있게 진행한것이다. 군당위원회가 출동식을 앞당긴 목적도 계절을 앞당기며 뜻깊은 새해농사차비에서부터 선동원들이 사상공세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게 하자는데 있었다. 하기에 선동원들은 출동식장에 전개된 수십만점에 달하는 선동자료들과 특색있는 선동기재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들을 배워주고 배우게 되였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갖춘 선동원들이 일제히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1 200여명의 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울린 사상공세의 힘있는 포성!

이것은 순간에 온 군을 들었다놓았다.

60일간의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리정철, 전승권, 김상협동무들을 비롯한 군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한개 농장씩 맡고 내려가 전투현장을 타고앉았다. 호암리를 비롯한 군소재지와 빌리 떨어져있는 농장들에는 정치분과를 조직하고 군당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선동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런 정치사업은 군안의 전체 선동원들을 분발시켰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이 진행하는 사상공세의 위력은 더욱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장 김정희동무는 선동원들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진지하게 짜고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당일군은 곧 앞선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중간총화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점마다 앞선 협동농장당조직들의 사업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렇게 되니 그 단위는 물론 다른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도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결국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발동되게 되였고 선동원들의 역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였다. 그에 따라 농장원대중의 열의가 비상히 고조되였다.

이렇게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거름생산과 심어내기전투에서 성과를 올리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군적으로 내세웠던 전투목표들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장 철 범

항일유격대나팔수들

영원한 찬호는 누가 먼저

용점불꽃이 날리던 1제관직장 작업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용점봉이 떨어진것이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정영길동무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수문바퀴생산을 당앞에 맹세다진 날까지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것이 바로 1제관직장의 들제작에 달려있기때문이였다.

그는 지체없이 자력갱생직장으로 달려갔다. 용점봉생산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이 연신기로라에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공구생산과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로라제작에 달라붙었다. 새 로라가 완성되자 그는 선전선동부의 일군들과 함께 로라교체전투를 벌리는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진행하고 일손도 도와주며 한밤을 꼬박 지새웠다. 련합기업소는 당앞에 맹세다진 날까지 수문바퀴생산을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지열설비생산기지건설이 한창일 때에는 직접 마이크를 틀어쥐고 선동연설을 하기도 하고 황철에 보내줄 중량베루수평교정기생산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힘있는 직관선동, 기동예술선동대활동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준 그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은 한순간도 비울수 없는 당선전일군의 전투좌지였다.

그렇다.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제1선,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항일유격대나팔수들의 참호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 향 란

북채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석탄생산실적이 높아지고있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가면 화제에 오르는것이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탄부들이 일하는 막장에서 그들과 어울려 석탄도 함께 캐고 쉴참을 리용하여 이들이 벌려나가는 경제선동은 말그대로 화선식이다.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높은 경제선동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되고있다.

이들이 막장경제선동을 하기 시작한것은 4년전부터였다.

올해에도 득장청년탄광 3갱의 채탄막장에서 경제선동의 첫 포성을 울린 경제선동대원들은 룡산탄광과 명학탄광의 굴진막장과 채탄막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탄부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드세게 벌리였다.

합창 《김정은장군찬가》와 《인민의 환희》, 독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비롯한 노래들은 탄부들의 심장을 팡팡 울려주었다. 그러니 이곳 련합기업소가 올해에 들어와 화력탄생산에서 앞서나가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70일전투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게 하자면 당일군들이 경제선동의 북채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드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중국대사관에서 2016년 중조친선봄맞이음악회 마련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 마련한 2016년 중조친선봄맞이음악회가 24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음악회에 초대되였다.

리진군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중국대사관 성원들, 중국류학생들, 화교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하였다.

음악회에 앞서 연설들이 있었다.

중국 길림성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음악회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민족악기의 독특한 울림과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3중모범청년작업반, 청년분조칭호를 여러 단위에 수여

농업부문의 청년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모범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각지 농촌의 청년들은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이 과정에 박천군 석계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만경대구역 금천남새전문농장 청년분조, 감산군 정흥협동농장 청년분조를 비롯한 19개 단위가 3중모범청년작업반, 청년분조칭호를 쟁취하였다.

수여모임이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 모범적인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수여사에 이어 3중모범청년작업반, 청년분조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에 표창장과 기발이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림으로써 우리 당을 쌀로써 옹위하고 받들어나가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네형제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주체104(2015)년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 진행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사이의 주체104(2015)년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이 24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임철웅내각부총리, 직맹일군들, 관계부문, 경쟁단위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주영철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지를 받아안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직하여주신 네형제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주체104(2015)년 사회주의증산경쟁진행정형을 총화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절사관철할 일념밑에 네형제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지난해에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활발히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쟁단위들에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쟁순위가 발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표창장과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모체)에 수여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대안친선유리공장 직맹위원장 김명기, 금성뜨락또르공장 직장장 차명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기사장 송명호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불러주시며 주체혁명위업의 혁실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로동계급의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통장혼을 불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주체105(2016)년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대매국과 악정, 북남관계파괴로 얼룩진 반민족적범죄의 3년

최악의 대결광기로 도륙낸 북남관계

박근혜역적패당이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볼 어리석은 망상밑에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그 무슨 《참수작전》이라는것을 꾀하며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력을 남조선에 련속 끌어들이고있는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불아오는 극악무도한 민족반역행위이다.

역적무리들의 치떨리는 도발적망동으로 북남관계는 사상 류례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박근혜역도가 지난 집권 3년간 저지른 북남관계파괴죄악의 련속이며 그 최절정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3년전 괴뢰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기어오르면서 《대북정책》으로 내든것은 《신뢰프로세스》였다.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교류 등을 통해 《북핵폐기》를 비롯한 《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것이 그 기본골자이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집권자의 《대북정책》은 《신뢰》의 간판을 내건 반공화국대결정책이였다. 괴뢰집권자 스스로가 《신뢰프로세스》는 《북의 도발》에 《타협하고 화해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철저히 응징》하는것이라고 뇌까렸다.

이런 흉심을 품은 대결광신자이기에 우리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느니, 《도박이고 착각》이라느니 하는 악담을 제처대면서 지난 3년간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도발소동에 피를 올고 날뛴것이다.

역도는 입만 싸개지면 《북의 제재가 불인》하다느니 뭐니 하는 미친 할미의 잠꼬대같은 수작을 늘어놓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한편 《북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피대를 돋구며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졸개들을 달구어댔다.

괴뢰집권자의 제재대결책동은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칠 기도밑에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에 광분한데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숨한 자금을 대주며 뻔질나게 감행하게 한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은 북남관계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그 무슨 《표현의 자유》에 대해 떠들면서 삐라살포를 금지시킬수 없다고 고아대다 못해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고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불어대게 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얼마나 제재대결에 환장이 되였으면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위해 군사분계선일대에 설치한 애기봉등탑이 철거되였을 때 《왜 없였는가.》,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가.》고 행악질하면서 원래것보다 더 크게 다시 만들도록 하였겠는가.

괴뢰집권자가 《통일대박》이니, 《통일준비》니 하는 카소로운 나발을 불어대며 《통일헌장》, 《통일헌법》따위를 조작하는데 열을 올린것도 그의 남다른 대결광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자기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제가 직접 그 우두머리가 되여 제재대결소동에 광분하였다. 목뒤에 부은 골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이래놓으니 수하졸개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고 고아대며 《제재통일》실현에 광분하였다. 동족에 대한 병적인 적대감과 대결판념이 골수에 박 들어차고 반공화국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집권자의 사촉에 따라 졸개들은 《북인권》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마구 헐뜯던 끝에 나중에는 《딸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폭언을 내뱉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까지 부리였다. 이런 무뢰한들에게서 어떻게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괴뢰집권자에게는 애당초 동족과 손을 잡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의지가 꼬물만큼도 없었다. 하기에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아량을 《진정성》이니, 《남남갈등》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들로 우롱, 모독하고 그 무슨 《권능》이니, 《적》이니 하고 생트집을 걸며 모처럼 마련되였던 대화의 기회마저 사정없이 깨버렸던것이다.

괴뢰집권자는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일때마다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고수》에 따른 그 누구의 《변화》니 하고 뻔뻔스러운 나발을 불어대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뿌렸는가 하면 허무니없는 모략날조설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헐뜯으면서 불신과 대결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청와대안방주인과 그 수하의 얼뜨기들이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인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폐기》시켜달라고 외세의 옷자락에 비굴하게 매달리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소동의 떨 앞장에서 날뛴것도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게 된 근원중의 하나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지난 3년간 북침광기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새 전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림으로써 조선반도에서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고 평화와 통일의 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였다. 괴뢰들은 상전과 함께 미본토핵무력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 북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노린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우리의 핵 및 미싸일기지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4D작전계획》에 맞도장을 찍고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감행하면서 해마다 전쟁화약내를 질게 풍기였다. 《어떤 경우에도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전쟁연습만대여론에 도전하며 미국과 북침불장난소동에 더욱 광분한 박근혜역도에 대해 내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 3년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마련되였던 합의들이 빈종이장으로 되고 조선반도정세가 나날이 긴장격화에로 치닫게 된것은 현 괴뢰집권자의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소동의 필연적후과이다. 역도야말로 사상 류례없는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넣은 주범이다.

지금 괴뢰집권자가 자기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악을 가리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소용이 없다. 역도가 민족앞에 지은 그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은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민생을 깡그리 짓밟은 최악의 반역정치

남조선인민들은 지금도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며 《국민행복시대》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벌이던것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그 보라빛공약들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민생은 최악의 도탄속에 빠지고 남조선인민들은 절망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다.

남조선에서 사람들사이의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가 고통받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울분의 웨침으로, 반《정부》민심을 상징하는 류행어로 된것만 보아도 그들이 반인민적악정으로 자신들에게 불행만을 강요하는 집권자를 얼마나 증오하고 저주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그 무슨 《경제민주화》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였다. 하지만 그의 집권 3년간 남조선에서는 보수패당의 친재벌, 친부자정책으로 하여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썩은 현실이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무슨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경기활성화》나발을 불어대며 《규제완화》의 간판밑에 기업주들에게 제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권한을 주었으며 《로동시장구조개혁》의 명분으로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령세기업들을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실업사태를 악화시키였다.

이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턱으로 내몰리고있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남조선각계층은 《99%를 죽이고 1%만 살리는 정책》이라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실업문제는 매우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료에 의하면 현 보수《정권》의 등장이후 남조선에서 실업률은 끊임없이 상승하였다. 이로 하여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여만명이나 된다.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비정규직로동자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있으며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지 몰라 불안속에 시달리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한 언론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은 비정규직, 나아질 가망이 없는 많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이 희망을 잃어가고있다.》라고 개탄했겠는가.

더욱 심각한것은 청년실업문제이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청년실업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것은 침발린 나발이였다. 그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해인 2013년에 벌써 20대청년들의 취업률이 대폭 떨어졌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대로 실업자로 되여버리는 그들의 처지를 놓고 남조선의 한 언론은 《빚을 내여 비싼 등록금을 메꾸고 졸업해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사회의 슬픈 모습》이라고 전하였다. 실업을 당한 수많은 청년들이 비관과 절망속에 몸부림치고있는것은 점처드는 생활난으로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부터 이제는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를 지나 꿈,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로 전락되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거리를 휩쓰는 실업대군, 당장 생계를 이어갈수 없어 아우성치는 인민들 그리고 뛰여오르는 물가와 세금, 증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 도처에서 꼬리를 무는 자살참극들은 반역패당의 최악을 만천하에 폭로해주고있다.

보다싶이 현 남조선집권자는 인민들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반역정책들만 골라가면서 내놓아 그들의 생존권을 짱그리 말살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근로인민들은 《우리는 더이상 노예가 될수 없다.》,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보수패당의 반역적악정에 항거하는 대중적투쟁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온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인권의 황량한 폐허로 전락시킨 반역《정권》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반역 〈정권〉 퇴진하라.》

본사기자

친미, 친일역적질로 기생해온 특등매국노

박근혜역도의 지난 집권 3년간은 희세의 친미, 친일로 기생해온 매국반역의 3년간이다.

최근 괴뢰역도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이라는데 나서면서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지르고있는것은 가장 추악한 친미주구, 민족의 피와 얼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역겨운 매국노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산 앵무새라는 오명은 사대매국파 친미굴종으로 일관된 괴뢰집권자의 더러운 대명사이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앉자마자 상전의 눈에 들고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 무슨 《혈맹관계》니 뭐니 하고 상전과 입맞춤을 해가며 미국과의 《동맹 60주년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다고 분주탕을 피웠으며 미국이 《가장 충실한 주구에게만 먼저주는 땅포각》으로 통하는 미국회 상하원합동연설에서 피로 얼룩진 미제의 남조선강점사를 《희망》이니, 《우정》이니 하고 피여올리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안방주인은 3년사이에 오바마에게 네번씩이나 안겨들었다.

지난해 10월에도 백악관을 찾아가 그 무슨 《북핵문제해결의 시급성》이니, 그 누구의 《인권상황개선》이니 하고 제 제목은 잡소리를 늘어놓으며 상전과 반공화국대결의 쌍피리를 영악스럽게 불어댔다. 남조선집권자는 미국행각때마다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아첨저녁으로 웃을 잘아입고 면테를 부려 사람들의 환멸을 자아냈다.

미국의 《51번째 주》에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는 주구의 정체는 지난 2014년에 있은 오바마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더욱 드러났다. 당시 오바마는 제발 한번 와주십사 하고 애걸하는 괴뢰들의 간청을 받고 식민지를 돌아보는 종주국 군주처럼 행세하며 잠간 들린다는 식으로 서울에 날아들었다. 그때는 온 남조선땅이 《세월》호침몰사건으로 대란리가 나 초상집으로 되여있을 때였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도처에서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에 찬 곡성이 터져나오는데도 그에는 아랑곳없이 오바마와 짝지어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비롯한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애걸하였고 상전은 졸개의 등을 두드려주며 전쟁수행을 더 잘 돌라고 흔시하였다. 남조선집권자의 그 몰골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것이였으면 인터네트에 역도를 조롱하는 웃음짜한 풍자사진, 풍자만화들이 실렸겠는가.

집권자가 이 몰이니 《새누리당》 대표니, 장관이니 하는자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에 날아가 《동맹》의 《소중함》이니,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니 하며 침략군표지의 오물청소부가 되여 히벌죽거렸고 삼복철에 비지땀을 흘리며 미군사령관을 들쳐업고 운동장을 돌아쳤다.

널리 알려진바이지만 남조선에서 일어난 미국대사징벌사건으로 미국의 더러운 특등주구인 현 괴뢰집권자와 그 졸개들의 정체는 말짱 드러났다. 미국대사 리퍼트를 찾아간 청와대안방주인은 자기도 칼세례를 받은 일이 있다고, 상처부위와 수술시간도 신통히 갈다고 코테를 부렸다. 《새누리당》 대표, 《국무총리》를 비롯한 보수떨거지들은 무리를 지어 미국대사가 성가실 정도로 병원을 드나들며 아첨경쟁을 벌리였고 집권자 녀동생의 남편이라는자는 병원앞에 쭈그리고앉아 그 무슨 《석고대죄단식》이라는 놀음을 벌려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이 쓸개빠진 역적들의 망동과 관련하여 당시 남조선항간에서는 《타국대사를 웃사람으로 섬기는 명예백인들》이라는 날말이 류행어처럼 나돌았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미국의 광대놀음에 장단을 맞추는 괴뢰보수패당의 역겨운 놀음도 인민들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냈다. 이자들은 해마다 군사분계선일대의 도라산에서부터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도처에서 《유엔군참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장송곡연주회나 다름없는 광대놀음을 펼쳐놓았다.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짱그리 짧아먹은 가증스러운 역적패당에게 저주를 퍼붓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난 3년간 괴뢰집권자는 극악한 친미매국노로서뿐아니라 희세의 친일역적으로서의 정체도 날날이 드러냈다.

남조선당국이 각계의 드높은 반일기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공유약정》을 감히 체결하고 지난해말에는 일본상전과 야합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라는것을 꾸며낸것은 괴뢰집권자의 친일매국적기질과 메여놓고볼수 없다.

《유신》독재자의 친일매국행동을 이은 현 괴뢰집권자는 일본과의 그 무슨 《신협력시대》를 운운하며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독도강탈 등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는 일본반동들에게 서슴없이 추파를 던지는 역적행위를 저질렀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협상의 《타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괴뢰집권자가 그 무슨 《국익》과 일본과의 《새로운 출발》을 외까리며 일본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몇푼의 돈을 받아먹는것으로 무마시켜준것은 민족의 존엄을 짱그리 말아먹은 희세의 매국협상, 친일굴욕의 극치이다. 괴뢰패당의 성노예문제협상파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1960년대에 《제2의 리완용이가 되더라도 회담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떠벌이면서 일본과 굴욕적인 매국협정을 체결하여 일제의 죄악을 덮어버린 《유신》독재자의 부활을 보았다.

극악한 친미역적, 친일매국노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민족을 반역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참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끊임없이 당하고있다.

《력사의 치욕을 끝장내는 길은 미국산 앵무새, 21세기 〈을사오적〉들을 민족내부에서 단호히 제거하는것이다.》

이것이 역겨운 식민지주구, 청와대안방주인의 집권 3년간 희세의 친미, 친일로 기생해온 매국반역의 3년간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독재통치에 환장이 된 극악한 파쑈광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참히 란도질당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것은 《유신》독재부활에 환장하여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짱그리 유린말살한 현 남조선집권자를 규탄하는 민심의 격분에 찬 목소리이다.

《유신》후예의 집권으로 남조선은 지난 3년간 민주와 인권의 페허지대로,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되는 암흑천지로 더욱 전락되였다.

집권초기부터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답습하며 진보민주세력을 가차없이 말살해온 현 남조선집권자의 파쑈적악행은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이 꾸며낸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은 《정권》위기를 수습하고 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폭압만행도 서슴지 않는 현 집권자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보여주었다. 반역패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에 있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내막이 폭로되여 심각한 통치위기가 조성되자 《내란음모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략극을 조작하여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이 당의 핵심인물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에 이어 반역통치에 항거해나서는 《자주민보》를 폐간시키고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를 박탈하는 파쑈적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유신》독재의 바통을 넘겨받은 현 괴뢰집권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파쑈폭압의 극치였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유신》독재자를 공공연히 찬미하며 그의 명예회복을 꾀하는 세력이 권력쟁탈전에 나선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실은 그것이 공연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정보원과 검찰 등 폭압기구의 요직들에 《유신》잔당들을 들여앉히고 악명높은 《보안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진보민주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현 괴뢰집권자의 파쑈적망동은 사실상 《유신》독재자도 무색케 할 정도였다.

남조선에서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불리우는 파쑈패당의 《종북세력척결》소동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현 남조선집권자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파쑈폭압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종북》광풍을 사납게 일으켰다. 파쑈광들은 저들의 반역통치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모조리 《리적》,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이자들이 파쑈적인 《종북》소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였으면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벌리는 반《정부》투쟁도 《종북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것으로 몰아 끊임없이 빚어졌다.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파쑈경찰들을 내몰아 가차없이 탄압하는 현 남조선집권자의 망동은 군부파쑈광패들도 울고갈 정도이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리는데 대해 법죄시하면서 최루액과 물대포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거나 진보적정당이나 단체, 로조인사들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과 광기어린 체포소동을 벌리는것은 너무도 흔히 목격하게 되는 사태이다. 꽃망울같은 애어린 자식들을 졸지에 잃은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의 진상규명요구조차 묵살해버리고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가차없이 탄압한 극악무도한 파쑈광도 바로 현 괴뢰집권자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자기의 반역정책실행을 위해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에 미쳐날뛰므로써 다시금 악명을 떨치였다. 역도가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운 로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4대개혁》은 남조선각계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악에 받친 청와대안방주인은 반인민적개악을 반대하는 각계의 투쟁을 그 무슨 《불법폭력시위》로 몰아대며 수많은 폭압무력을 내몰아 무지비하게 탄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지난해 11월에 있은 민중총궐기투쟁에 대한 괴뢰패당의 몸서리치는 파쑈탄압행위는 독재통치에 명줄을 걸고 두손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는 이자들의 흉악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었다.

악명높은 독재자인 현 남조선집권자의 죄악의 행적을 다 헐거하자면 끝이 없다. 역도의 악랄한 독재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파쑈폭압이 란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정치는 그야말로 란장판이 되였다.

현 괴뢰집권자야말로 만고의 역적, 희세의 파쑈광이다. 역도의 전대미문의 횡포한 독재통치는 민심의 강력한 항거를 낳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유신》독재부활에 미쳐날뛰는 괴뢰집권자의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역도에게 반드시 징벌의 철추를 안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 영 국

굴욕적인 《합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한다

《굴욕 〈합의〉가 무효화될 때까지 싸우자.》

《〈로동개혁〉 지침은 독재, 로동재앙》

끊임없이 들씌운 재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저런 것이 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이 이 나라 현 남조선당국이 들씌운 재난이다. 몇가지 실례만 놓고보자.

2014년 4월 16일 남조선의 진도앞바다에서 려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여 수학려행을 가던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져죽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전세계를 경악시킨 《세월》호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뜻밖의 재난이 아니라 현 남조선당국에 의해 빚어진 살인사건, 고의적인 집단학살만행이였다. 이로 하여 온 남조선땅이 피철은 곡성과 보수당국을 절규하는 웨침으로 차넘치고있는데 서울지하철도에서 또다시 큰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5월 2일 서울지하철도에서 전동차들이 충돌하여 숱한 사람들이 부상당한것이다. 이 소식은 남조선사회를 다시금 큰 충격에 빠뜨렸다. 《세월》호침몰사건으로 당국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있는데도 집권세력은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은것이다.

무능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권력을 옹지하는데만 눈이 빨개 돌아치는 보수패당의 망동으로 피해를 당하는것은 인민들이다.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의 한 뼈스정류소와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큰 화재사고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해 10월에는 서울의 한 야외극장에서 공연도중 통통구덩개가 무너져 16명이 죽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이 또 빚어졌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좀처럼 끊길줄 모르는 대참사들은 당국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들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않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준다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나어린 생명들을 어처구니없이 수장시킨 《세월》호대참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잇달은 각종 사고들의 근원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이나 초보적인 안전규정조차 무시하는 남조선사회의 제도적병집과 함께 기업주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부정부패,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조장해온 현 괴뢰집권자의 반역정책이다.

그로 하여 지난해에도 남조선에서는 각종 사고들이 쉴새없이 일어나 사회를 끝없는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인천의 영종대교에서 100여대의 자동차들이 충돌한 사고, 서울 종합체육관건설공사장의 천정들이 무너져 7명이 묻힌 끔찍한 사고, 경기도 양주시의 한 살림집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피소동…

사회에 망조가 들면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마련이다.

남조선언론들은 현 집권자가 청와대에 들어앉은 후 하늘에서는 려객기고장으로 대참사가 빚어질번 하고 땅우에서는 형형색색의 사고들이 련발하는가 하면 바다에서는 려객선이 침몰하는 등 특대형불상사가 계속 점처들고있는것을 보면 재앙이 도래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 3년간의 현실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저 하나의 향락과 집권유지에만 미쳐돌아가는 괴뢰보수패당의 부패무능과 무책임한 자세, 그에 의해 인민들의 불행과 재난이 날로 커가는 남조선사회의 일단을 집중적으로 폭로해주고있다.

현 집권자에게는 더이상 기대할것도 지켜볼것도 없다는것을 피눈물속에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이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이런 〈정부〉 필요하지 않다.》, 《이제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구호판들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속에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현 괴뢰집권자가 버티면 얼마나 더 버티겠는가.

본사기자 김 향 미

불통으로 저주받은 청와대

현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민중과의 소통》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인민을 기만하며 인민우에 군림하여서는 희악의 불통정치로 온 남조선땅을 고통의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남조선집권자는 여당과 《국회》를 자기의 들러리로 만들어버렸고 야당은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 독단과 전횡이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현 집권자의 당선을 위해 뛰여다닌자들이 혐오감을 품고 역도의 곁에서 달아나버렸다. 이로 하여 《등돌리는 〈박근혜의 남자들〉》이라는 날말까지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패거리들은 집권자의 불통에 대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폭소를 터칠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5년내내 불통소리를 듣겠다고 고아대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실제로 남조선집권자는 민심은 아랑곳없이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뇌까려 여론의 강한 규탄을 받은자를 《총리》후보로 내세웠는가 하면 신통히 인간쓰레기같은자들만 골라 장관후보들로 추천하군 했다. 그것이 통을 맞으면 《얼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무덤거리며 버티기를 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불통의 본산인 청와대의 졸개들을 교체할데 대한 민심의 요구에는 《내 새끼들이다.》라고 고아대며 아예 귀를 틀어막았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싸이트들에서는 폭정과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알려진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왕비의 초상에 현 집권자의 얼굴을 합성한 《말이 안통하네뜨》라는 제목의 그림이 인기상품처럼 류행되였다. 고집불통으로 귀머거리가 되여버린 남조선집권자의 추태에 내외가 치를 떠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정계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기본원인이 바로 집권자의 불통정치에 있다는것이 각계의 일치한 평이다. 지금 《새누리당》것들까지 청와대의 무시와 독단을 더는 못 참겠다고 들고일어나는 판이다. 그러니 민심의 분노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에서 《안녕 한가?》라는 물음에 《청와대의 불통정치때문에 안녕치 못하다.》라고 대답하는것이 언어생활의 《예의》로 되였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불통《대통령》때문에 《경제는 광통, 국정은 먹통, 민중은 분통, 서민은 고통뿐》이라고 절규하면서 집권자에게 저주를 퍼붓고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해치려는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사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을 일삼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만일 작전에 투입되는 특수작전무력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든 끝까지 따라가 가차없이 징벌해버리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단호한 립장과 천백배의 보복의지의 선언이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에 얼혼이 빠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수 없게 되자 마지막도박에 매여달리고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제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이미 이 작전에 투입될 미제침략군무리들이 줄줄이 남조선에 밀려들고있다.

지금까지 미제가 각종 명목밑에 남조선에 무력을 들이밀군 하였지만 미제침략군 륙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모든 특수작전무력들, 이른바 《족집게식타격》에 동원되는 침략무리가 일시에 쏟아든적은 일찌기 없었다.

미제는 곧 강행하게 될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때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인 련합《참수작전》과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무력《제거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극히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의 극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운명의 앞길은 물론 온 세계를 밝게 비춰주고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는 눈부신 태양이며 최고존엄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존엄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무모하게도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최고존엄을 어째보려 하고있다.

하늘의 태양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자들은 마땅히 천벌을 맞기마련이다.

미국은 타산을 잘못하였다. 태양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에 칼질을 하려는 불망나니들의 무모한 망동을 털끝만큼도 허용하지 않는 백두산혁명강군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주고 귀띔도 해준것은 차례질 후과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행동하기를 바라서였지 결코 타협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의 생명인 최고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그것을 유린하고 파괴하려는자들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분별을 잃고 날뛰는 침략자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또 상대할 필요도 없다. 오직 불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철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이번에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서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이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라고 선언한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하면서 우리의 제도를 어째보려고 한 남조선괴뢰들의 죄악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경고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망동에 매여달린다면 우리는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 식의 타격전으로, 이 세상이 상상할수도 없는 보복성전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침략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도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다.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이라는 악의 본거지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남강도 미국파의 관가리절산을 위해 한두해도 아니고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대를 이어가며 총력을 다해온 우리의 군사적능력에 대해 이제는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미제침략군기지들은 언제나 우리의 조준경안에 들어있으며 보복타격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놓은 상태에 있다. 조금이라도 움찍거리기만 하면 우리의 타격에 고스란히 맞아야 하고 들씌우면 그대로 불타 없어져야 하는것이 미국에 주어진 숙명이다.

대양건너 멀리에 미국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진짜총대맛,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다.

미국이 군사적힘으로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꺾고 우리의 제도를 뒤집어엎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이다.

미국은 상대를 너무나도 모르고 덤벼들고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받고있으며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로를 내대는 담대한 배짱과 기질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힘 꺾을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미국과 한두번만 맞서보지 않았지만 오직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해왔다.

미국은 언제나 수치와 참패만을 당하였다. 우리가 승리하고 미국이 패하는것은 하나의 어길수 없는 법칙으로 되였다. 가련한것은 수십년간의 조미대결의 력사가 흐른 오늘까지도 미국이 이것을 모르고 헤덤비고있다는데 있다.

망조가 비낀 미국이 저들의 처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 누구를 《붕괴》시키겠다고 하는것은 가소롭다.

대결의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패배는 불가피한 법이다.

미제와의 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결판을 내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제가 제땅에서 종국적인 멸망을 보게 될 날은 멀지 않았다.

미국은 운명의 갈림길우에 서있다. 한길은 우리의 무지비한 천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이고 다른 길은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숨쉴 자리가 없다.

리 학 남

승리는 조선의것이다

침략의 무리들이 이 땅을 짓어뜯자고 미친듯이 쏟아들고있다.

미제침략군 핵동력잠수함 《노스캐롤라이너》호가 부산항에 입항하고 《F—22A》스텔스전투폭격기들이 오산미공군기지에 기동전개하였다. 그밖에 특수작전무력이 련속 남조선에 밀려들고있다. 미제의 이 침략무력들은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를 어지럽히려 하고있다.

악명높은 미제침략군이 이렇게 일시에 조선반도에 쏟아든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저들의 비렬한 책동들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제제붕괴》를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미제의 이 무모한 망동은 멸망을 앞둔자의 최후발악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천만군민은 승리를 확신한다.

우리의 승리의 력사는 세계가 인정하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괴수들 타승한 영웅적조선인민이다. 오늘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200여만의 침략군무력이 어떻게 죽탕이 되도록 얻어맞았고 100차에가 훨씬 넘는 전쟁들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가 어떻게 깨여져나갔는가를.

3일이면 끝낸다는 전쟁을 미국은 3년동안이나 치르고서도 력사상 체험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전쟁의 참패에 대해 당시 미국방장관은 《신화는 깨여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라고 고백하였으며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정전협정조인후 방송마이크앞에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것이였고 쓰라린것이였다.》라고 구슬픈 어조로 자인하였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력사상 처음으로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령장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강철같이 뭉친 나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인민이 이룩한 력사의 필연이였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미국은 그후에도 새 전쟁도발책동을 일삼으면서 우리와의 정면대결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승리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다.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1994년 12월 미군정찰직승기사건 등 미국의 도발에 의한 첨예한 조미군사적대결전들은 매번 우리의 빛나는 승리로, 미국의 항복과 사죄로 결속되였다.

언제인가 미합동참모본부의 주요성원들이 모여앉아 제2의 조선전쟁을 모의한적이 있었다.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미국이 조선을 이길수 없다는것이였다. 그에 따르면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병력의 총손실은 100만명, 조선전쟁에 미국이 지출하는 비용은 1 000억US$, 남조선의 경제적손실액은 1조US$이상에 달하였다. 모의전쟁에서조차도 이길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실망케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싹 전에 있은 일이다.

오늘날 우리 조국은 화승총도 제대로 없어 식민지운명을 강요당하던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려고 무모하게 놀아대는 이 시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에서 우리는 더이상 우리의 군사적능력에 대하여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것,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는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상상할수도 없는 무자비한 보복전으로 악의 소굴을 이 행성에서 뿌리채 뽑어낼 의지로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순간은 곧 종국적파멸의 순간으로 될것이다.

미제의 항복서를 받아낸 긍지를 안고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지나갔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처럼 우리는 최후승리의 기발을 통일의 광장우에 높이 휘날릴것이다.

김 국 철

미국에 주어진 숙명적인 말로

지난 세기 50년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처참하게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 미군, 감출수 없는 패자의 비참한 몰골이다.

세월은 흘러 조미대결의 력사도 수십년, 세계《최강》의 제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고 피절은 성조기는 언제나 우리의 발밑에 밟혀야 했다. 미국의 숙명이다.

본사기자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라

지난 세기 50년대뿐이 아니다. 1967년 미국의 부추김밑에 《경호함 56》호가 조선동해 우리측 수역에 침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단호한 징벌을 받고 바다물속에 수장되였다. 그 다음해에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어 정탐활동을 위해 돌아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 미국은 제편에서 허세를 부리였다.

《《푸에블로》호를 빼앗아와야 한다.》고 으르렁대면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기동타격무력을 조선동해로 출동시키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그러나 《푸에블로》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화국을 위협해나서던자들이 우리의 단호한 폭탄선언에 기가 죽어 항복서를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어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이후에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과 같은 참패의 고배를 맛보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초엽의 조미핵대결시 미국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이것을 기화로 《북조선조기붕괴설》을 내돌리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였다. 120만의 제국주의련합군과 태평양에 있는 방대한 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긴급출동시키고 대조선포위환을 겹겹으로 조이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핵전쟁발발의 기회를 노리였다.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련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자 혼비백산한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대통령담보서한까지 우리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첨예하게 벌어진 조미대결전에서도 보기 좋게 패하였다. 호전적인 부쉬정권은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망상과 세계제패야망에 현혹되여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선불질을 하려고 시돌렸다.

우리 공화국은 최고리익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조건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속담에 이러 석은자는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상대를 잘못 보고있기때문에 패배는 불가피하다. 오바마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그 누구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으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쓰디쓴 참패만을 당한자들이 오늘에 와서 어떤 비명을 지르고있는가를 또 보자.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자는 《북조선때문에 때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해외침략력사에서 제땅에 포탄 한발 날아온적이 없다고 하던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까지도 핵악몽에 시달리며 감히 선불질을 못하고 쩔쩔 매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조미대결구도이다.

덮어놓고 말하면 조국해방전쟁후 미국과의 치렬한 대치상태로 하여 단 한시도 전쟁의 검은구름이 가시여진적이 없는 실정에서 우리는 만단의 전쟁준비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설사 핵전쟁이라고 해도 맞서싸울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미국은 이제라도 반제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결사의 의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종국적패전사를 써주자는것이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이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지 않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본사기자 리 현 도

단 평 이발빠진 승냥이무리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마지막명줄을 건 죽음의 도박판을 벌려놓았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 위해 특수작전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리가 남조선으로 쏟아들고있다. 여기에 핵동력잠수함과 스텔스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전쟁장비들이 합세하고있다. 그야말로 우리의 도리깨질마당안으로 제 죽을줄 모르고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모든 침략무력을 일격에 쳐물리칠 자위의 힘을 가지고있다.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또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핵전쟁장비들을 끌고 메를 지어 쏟아드는 침략군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이발빠진 승냥이들의 단말마적발악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에서도 이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수십년간의 조미대결과정에 우리의 군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파넉을 정해놓고있다.

미국의 발악은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앞에 기가 꺾인자들의 무기력한 말버둥질이며 최후멸망의 운명을 모면해보려는 허세이다.

이제는 우리의 결심여하에 따라 미국의 종말의 시한부가 정해지게 되여있다.

미국의 삼살개가 되여 제법 짖는 소리를 내며 강토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남조선괴뢰들이 제일먼저 징벌의 불소나기를 맞아야 한다.

미국이 주구의 처절한 종말을 눈앞에 보면서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과 미국본토가 재가루로 변할것이다.

침략의 아성들은 우리의 조준권안에 들어있으며 보복타격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놓은 상태에 있다.

리 철 혁

최후발악은 무덤으로 가는 길

대조선적대시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은 미국이 끝끝내 종국적멸망에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지금 미제침략군의 각 군종, 병종들에 소속된 특수작전무력들이 남조선에 쏟아들어와 해당한 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작전개시의 신호총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고있다. 친미사대와 매국에 환장한 남조선괴뢰패당은 제 집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족을 살해하려는 남강도무리를 마구 끌어들이고있을뿐아니라 괴뢰군을 미제가 계획한 작전에 동원하려고 대기상태에 두고있다.

미제가 계획한 작전이 바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고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무력《제거작전》이다. 미제는 곧 강행하게 될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시에 그 작전들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횡설수설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통쾌한 완전성공에 혼이 쏙 빠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최후발악을 하고있는것이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또 한차례의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최후발악은 곧 저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는 길로 될뿐이다. 미제에게 있어서 1950년대의 조선전쟁이 멸망의 시초로 되였다면 21세기의 조선전쟁은 멸망의 종착점으로 될것이다.

력사는 미지배층이 그토록 숭상하는 《힘만능론》이 미국의 멸망과 잇닿아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무렵 미제는 전후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강화하고 침략적대외정책을 손쉽게 실현할 목적으로 《힘만능론》을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미국의 《힘만능론》이 어떤것이였는가는 리승만괴뢰정부의 내무장관이였던 김효석의 고백서에 언급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말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고백서에 의하면 무쵸는 정치는 힘이다, 힘과 힘이 마주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승리가 선이요, 패가 악이다라고 떠벌였다. 바로 여기에 힘을 만능으로 여기는 미국식철학이 있고 전쟁관점이 있다.

1950년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 공화국과 미국의 군사기술적력량은 전혀 대비도 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해방된지 5년이 채 안되였고 우리의 혁명무력이 정규군으로 개편된지는 2년이 좀 지난 형편에 있었다.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은 너무도 청소하였다.

그러나 미제가 전쟁도발직전까지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들인 침략무력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미제는 그해 4월말부터 북해공군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구실밑에 항공모함 2척, 순양함 2척, 구축함 6척을 끌어다 미제7함대를 증강하였으며 3개의 《B—26》과 《B—29》폭격기련대, 6개의 추격기련대, 2개의 수송기련대를 일본에 들이밀었다. 그리고 일본에 주둔하고있던 미제8군관하의 4개 사단을 땅크와 포, 수송 및 기타 병종들로 증강하여 언제든지 조선전선에 투입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일본도서 《조선전쟁》은 《개전직전에 주일미공군은 제트기를 포함하여 전투기 375대, 야간전투기 40대, 폭격기 80대, 수송기 50대, 련락기 50대, 합계 595대를 준비하였다.》라고 쓰고 《맥아더는 이 구동공군이 출동하면 조선전쟁은 간단히 끝날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한 잡지는 《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어있은 례를 찾아볼수 없었다.》라고 썼다.

미제는 또한 조선전쟁을 위하여 남조선괴뢰군을 미군의 들적대로, 총알받이로 품들어 준비시켰다.

도서 《중국인이 본 조선전쟁》은 《미국경제협력국 조선분국 국장 존슨은 1950년 5월 19일 미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제무기로 장비되고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된 남조선군 〈10만명이 이미 준비가 완성되였고 언제든지 작전에 들어갈수 있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여러 기회에 남조선괴뢰군은 《…현재수준으로 보아 외국의 같은 급 무력의 2~3배의 병력을 물리칠수 있는 실력이 있는것으로 본다.》느니, 《미국밖에 있는 군대중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군 하였다.

미제는 이처럼 조선전쟁도발을 위해 숱한 품을 들였다. 당시 미제가 보유한 원자탄들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본토의 경제적잠재력,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우두머리의 지위까지 계산한다면 그 힘에 대비할 나라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였다. 아무리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제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었다. 미제의 힘의 신화는 여지없이 부서졌고 《승승장구》의 력사에 종지부가 찍혔으며 미국은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핵무기를 보유하고서도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이 오늘에 와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는것자체가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조선반도로부터 미국본토까지는 결코 아득히 먼거리가 아니다. 미국이 저들땅덩어리에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하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싸움을 하던 옛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미제의 모든 특수작전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은 물론 미국본토도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최첨단타격수단들의 조준권안에 들어가있다.

우리를 노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참수작전》, 《제거작전》은 오히려 저들의 명줄을 끊고 본거지가 깨뜟이 불타버리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종국적멸망은 우리와 맞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숙명적인 말로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수

ㄱ-61031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허가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